

## 유럽: 또 하나의 초강대국인가?

이재승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 Robert Kagan, *Of Paradise and Power: America and Europe in the New World Order* (Alfred A. Knopf, 2003).
- Jeremy Rifkin, *The European Dream: How Europe's Vision of the Future is Quietly Eclipsing the American Dream* (Tarcher, 2004).
- Glyn Morgan, *The Idea of European Superstate: Public Justification and European Integration* (Princeton University, 2005).

### I. 유럽의 미래: 낙관론과 비관론

2004년 EU는 중·동유럽의 10개 신규회원국을 가입시킴으로써 25개국을 아우르는 정치체로 성장했다. 경제적인 차원에서 볼 때, 확대된 EU는 미국을 크게 능가하는 4억6천만명의 인구, 미국에 필적하는 GDP 규모, 그리고 세계교역의 40%를 차지하는 거대 단일시장을 출범시키게 되었다. 루마니아, 불가리아와의 가입이 2006년경으로

예상되는 등 앞으로 EU의 외연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EU 확대를 통해 향후 국제질서 재편에 있어 유럽이 지금까지보다 더 큰 정치적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주체로 자리잡았다는 의미도 중요하다. 특히 이라크전을 계기로 EU의 주축을 이루는 프랑스와 독일은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고, 기존의 대서양 동맹(transatlantic alliance)에 대한 도전이 가시화되었다. 이와 더불어 미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초강대국으로서의 유럽의 위상에 대한 조명이 여러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단일통화의 성공적인 도입과 경제통화동맹(EMU)의 공고화를 기반으로 EU는 정치적 통합 증진에 나서게 되었고 이는 유럽헌법의 제정이라는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2005년 회원국들의 유럽헌법 비준 과정에서 예기치 않았던 암초가 부각되었다. EU의 중심축을 이루는 프랑스의 유럽헌법 비준안 부결과 뒤이은 네덜란드의 부결은 유럽헌법의 장래는 물론 정치공동체로서의 EU의 한계를 노정하기 시작하였다. 유럽헌법의 부결은 EU 확대에 대한 불안감에서부터 유럽통합을 추진해 온 엘리트와 대중 간의 괴리에서 나타난 정당성의 위기 등 다양한 측면의 논의와 자성을 불러일으켰다.

미국에 필적할 초강대국으로서의 통합유럽의 위상은 이러한 낙관적인 차원과 비관적인 차원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예측해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로버트 케이건의 *Of Paradise and Power*, 제레미 리프킨의 *The European Dream*, 그리고 글린 물건의 *The Idea of European Superstate*를 중심으로 유럽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고찰해 본다.

## II. 약자의 선택

이미 상당부분 친숙해진 케이건의 『낙원과 권력에 대하여(Of Paradise and Power)』는 2002년 여름 *Policy Review*지에 “힘과 나약함(Power and Weakness)”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던 논문을 보완해 펴낸 책이다. 케이건은 이 책에서 미국과 유럽이 서로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양자가 지닌 힘의 차이(power gap)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강자가 세상의 위협요소에 대처하는 방식은 약자와 다르다. 유럽은 상대적으로 나약한 약자의 입장에 있으며, 스스로 위협 요소를 제거할 힘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다자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강한 미국은 국제사회의 위협요소를 제압할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힘에 기반한 일방주의적 외교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과거 미국이 유럽에 비해 상대적인 열세에 있었을 때 영국을 위시한 유럽이 오히려 일방주의적 외교전략을 폈던 데 비해 미국은 국가연합(League of Nation)을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외교 전략을 선호했었다.

케이건(Robert Kagan)은 이러한 현실을 나타내는 몇 가지 비유를 들고 있다. 하나는 칼을 든 사람(유럽)과 총을 든 사람(미국)이 꿈(위협 요소)과 마주쳤을 때이다. 무기라고는 칼 한 자루밖에 없는 사람은 숲 속에서 꿈을 만나면 꿈을 공격하는 위험을 무릅쓰기보다는 꿈이 덤벼 들지 않기를 바라며 피해 다니는 편이 위험부담이 적다. 그러나 총을 가진 사람은 꿈을 제거해 위협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해 버릴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보안관(미국)과 술집주인(유럽)의 비유이다. 무법자(위협 요소)가 나타났을 때 보안관은 무력을 행사해서라도 무법자를 체포하

려고 하겠지만 술집주인은 자신의 술집에서 총격전이 벌어지는 것보다 무법자가 조용히 한잔 마시고 사라지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후세인 집권 하의 이라크를 곰이나 무법자로 놓고 볼 때 이를 제거할 능력을 가진 미국이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면 이보다 약한 유럽은 위협요소와 의 공존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힘의 격차 때문에 미국과 유럽은 더이상 공동의 전략문화(strategic culture)를 가지지 못한다.

케이건의 논리 하에서 유럽은 군사적으로 미국을 견제할 수 없는 약자의 위치에 있으며, 따라서 유럽은 초강대국이 되기 어렵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은 미국의 핵 우산 아래서 복지와 경제통합에 전념하며 안보적 측면에서는 무임승차를 해 왔다. EU 내에서 가장 군사 강국이 될 수 있는 독일은 2차 대전 이후 재무장하지 않을 것을 강요받아왔고 이는 역설적으로 유럽의 군사력을 약화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케이건은 EU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럽이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유럽이라는 “낙원(paradise)”을 미국이 외부에서 보호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냉전 체제가 종식되고 난 후 발생한 발칸반도의 분쟁, 그리고 코소보 사태에 있어서 EU가 보여준 대응은 비효율적이고 미온적인 약자의 모습이었다. 국제 사회가 여전히 힘이 지배하는 홉스(Hobbes)적인 세계일진대 유럽은 경제적인 거인이 될지는 몰라도 정치적으로는 난장이일 뿐이다

미국 네오콘의 입장을 잘 반영하는 케이건의 명쾌한 논리는 많은 독자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도식화된 이분법적 구도 하에서 유럽이 가지고 있는 많은 가치와 능력을 과소평가했다는 비판도 불러일으켰다. 다음에 소개할 리프킨의 저서는 이러한 유럽의 가치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 Ⅲ. 새로운 유럽적 세계상을 찾아서

케이건이 “화성에서 온 미국인과 금성에서 온 유럽인”의 시각에서 양자를 비교했다면, 리프킨(Jeremy Rifkin)의 『유럽의 꿈(The European Dream)』은 케이건과 반대의 입장에서 유럽이 지닌 가치의 우월성이 향후 세계를 이끌어갈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인들이 과도한 노동,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그리고 시간에 쫓겨서 사는 반면 유럽인들은 보다 건강하고, 즐기며,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유럽의 자본주의에 대한 인간적인 접근은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리프킨은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과 유러피언 드림(European dream)과의 비교를 통해 설명해 내고 있다.

아메리칸 드림이 경제 성장, 근로 윤리, 개인의 부, 독립을 중시하는 반면 유러피언 드림은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 내의 관계를, 동화보다는 문화적 다양성을, 부의 축적보다 삶의 질을, 무제한적 발전보다 환경 보존을 염두에 둔 지속 가능한 개발을, 무자비한 노력보다 온전함을 느낄 수 있는 ‘심오한 놀이(deep play)’를, 재산권보다 보편적 인권과 자연의 권리를, 일방적 무력행사보다 다원적 협력을 강조한다.” 유러피언 드림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는 한편 다문화 세계를 수용하는 데 그 기반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세계주의적인 경향이 강하다. 미국이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종종 무력개입을 시도하는 데 반해, 유럽은 외교와 경제 원조를 통해 분쟁을 피하려 하고, 평화 유지 작전을 선호한다. 이처럼 유러피언 드림은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성격을 띠며 지구 전체의 복리를 증진시키려 노력한다. 『노동의 종말(The End of

Work)』, 『접근의 시대(The Age of Access)』, 『수소경제(Hydrogen Economy)』 등의 저서를 통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온 리프킨은, 개인의 자율성과 부의 축적의 핵심인 아메리칸 드림은 더 이상 급변하는 글로벌 사회를 지탱할 수 없으며, 이러한 아메리칸 드림보다는 유티피언 드림이 진보의 동력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동안 통합과 협력 과정에서 보여지듯이 유럽이 여러 국가들과 민족들 사이의 다양한 이해관계들의 통합을 이루어 낼 수 있다면, 유럽은 글로벌 시대의 도전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의 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이 당면한 진정한 도전은 유럽인들이 자신들의 경험, 그리고 자신들의 시각을 유럽의 차원을 넘어서 보편적인 인류, 그리고 세계로 넓힐 수 있는지의 여부일 것이다. 리프킨은 이러한 점에서 유럽인들이 좀더 희망적이고 낙관적이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유럽은 독자적인 세계 차원의 어젠다를 설정해야 하고, 아메리칸 드림과 다른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꿈을 가져야 한다. 리프킨의 이러한 견해는 유럽의 사상적 가치와 도덕적 우월성을 기반으로 유럽이 글로벌 시대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초강대국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IV. 초강대국 유럽의 조건은 무엇인가?

가장 최근에 발간된 물건(Glyn Morgan)의 『초강대국 유럽의 사상(The Idea of European Superpower)』은 정치철학자의 입장에서 유

럽통합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다. 물건의 시각은 특히 2005년 유럽 헌법 비준의 위기 상황에서 유럽통합의 미래를 가름해 볼 수 있는 내부적 성찰을 제공한다.

물건은 우선 어떤 형태의 유럽이 “공공의 정당성(public justification)”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 논의한다. 이를 위해 물건은 정당성의 민주적 기준을 형성하는 공공성(publicity), 접근성(accessibility), 충분성(sufficiency)의 세 가지 구성요소를 지적한다. 통합유럽의 미래에 대한 대안은 크게 대화와 논쟁의 관례에 의해 유지되며 극단적으로 탈집권화된 정치체를 상정하는 “탈주권적 유럽,” 그리고 연방체로서의 유럽(federal Europe)이 개인적 안전을 보장해 주는 “주권적 유럽,”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이 중 물건은 후자의 주권적 유럽을 강조하며 “효율성에 의해 정당성을 확보 받을 수 있는 수평적(parallel), 비중첩적(nonduplicative)인 정치구조에 기반한 내부적 주권”이 유럽이 가장 필요로 하는 요소임을 지적한다.

유럽헌법의 비준이 궁극적으로 부결되는 상황에 대해 물건은 현재 EU의 주요 통합기구들이 원활히 작동하는 한 일정기간의 냉각기(cooling-off period)를 거쳐 새로운 헌법안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 프랑스를 비롯한 주요 회원국들의 유럽헌법의 비준 실패로 인해 EU는 오히려 본질적인 정당성과 지향점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였다. 정당화(justification)와 관련된 논의는 엘리트 중심의 유럽에서 벗어나 이제 대중의 참여라는 새로운 국면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유럽헌법의 비준 부결이 통합유럽에 근본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재 예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유로화의 붕괴

이다. 정치통합의 진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EU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단일통화와 경제통화동맹(EMU)이 붕괴될 경우 통합유럽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유럽이 만약 초강대국으로 남기를 원한다면 단지 경제적 통합체로 머무를 수만은 없다. 몰건은 유럽이 진정으로 미국의 힘과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의 통합된 군대와 외교정책을 가진 주권적 통합체(sovvereign entity)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이 실질적인 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전통적 의미의 주권체이기 때문이다. 만일 미국이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50개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 지금 미국의 지위는 얻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단일국가 체제와 단일 군대가 없는 한 미국의 일방주의를 비난하는 것 외에 유럽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기존 EU의 주창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탈주권(post-sovereign) 모델은 이러한 관점에서는 적절치 못하다. 그러나 몰건 역시 단일주권국가로서의 EU를 적어도 단시일 내에 이루기는 요원할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기에 현존하는 국가이익과 국가정체성은 아직 너무 강하다.

이상에서 논의한 세 권의 책들은 초강대국으로 나가기 위한 유럽의 미래에 대한 낙관론, 비관론, 그리고 내부적인 성찰을 담고 있다. 초강대국으로 나가기 위해 넘어야 할 장애 요소는 결국 유럽 내부와 외부에 모두 존재하고 있다. 초강대국으로서의 유럽의 위상은 우선 미국과의 상대적인 역량에서 결정될 것이다. 군사적인 열세가 변하지 않는 현실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케이건이 주장한 힘의 간극을 유럽이 가진 사상적 가치와 외교적 역량, 그리고 경제적 역량으로 얼마만큼 줄여나갈 수 있는지가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럽의 정치



적, 외교적 역량은 결국 유럽 내부에서의 정치적 통합의 증가에서 결정될 것이며, 이는 단순한 제도적인 차원을 넘어서 민주적 정당성과 사회적 협의, 그리고 한층 더 높은 주권체로서의 유럽의 새로운 정체성을 찾는 과정 속에서 가능할 것이다.\*

## 서울평화상문화재단에서는 원고를 모집합니다.

기고할 논문은 평화와 연관된 주제로 순수학술논문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원고 매수는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입니다.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으며, 당재단의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친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출판된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는 『국제평화』 ‘원고집필요령’에 따라 ‘아래아 한글’로 작성 하셔서 온라인을 이용하시거나 서울평화상문화재단 연구실 앞으로 우송하시면 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원고와 더불어 A4 2장 내외의 국영문 논문 요약본, 그리고 투고자의 연락 가능한 주소, 전화 / 휴대폰, E-mail 주소를 함께 보내셔야 합니다.

- 주소: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88-2 올림픽공원  
서울평화상문화재단 연구실
- 전화: 02-2203-4096~8
- E-mail: hglee@spp.or.kr

\* 원고집필요령은 서울평화상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www.spp.or.kr>) 재단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국 제 평 화

Journal of International Peace

제 2 권 2 호(2005년 12월)

---

인 쇄 / 2005년 12월 24일

발 행 / 2005년 12월 28일

등 록 일 / 2005년 2월 14일

등록번호 / 서울사02009

발 행 처 / 서울평화상문화재단

발 행 인 / 서울평화상문화재단 이사장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88-2 올림픽공원내

Tel : (02)2203-4096~8

Fax : (02)417-1982

<http://www.spp.or.kr> E-mail : [sppcf@spp.or.kr](mailto:sppcf@spp.or.kr)

제작 · 인쇄 : 밝음기획(T. 2264-9415)

---